

TOKYO INTERNATIONAL BOOK FAIR 2003



인협 주관, 동경국제도서전시회 첫 참가



일본에 한국 인쇄문화 알렸다



지난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일본 도쿄(東京)의 빅사이트전시장에서 열린 '동경국제도서전시회 2003(TOKYO INTERNATIONAL BOOK FAIR 2003 : TIBF)'에 한국 인쇄전시관이 마련돼 한국의 인쇄문화 홍보에 많은 역할을 했다. 이번에 마련된 한국 인쇄전시관은 대한

인쇄문화협회(회장 민재기)의 주관으로 회원사 4개사가 참가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인쇄문화 홍보는 물론 수출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참가한 업체는 정문사문화(대표 민재기), 평화당인쇄(대표 이일수), 청야문화사(대표 김남수), 이미지크루(대표 최

〈표〉 TIBF 2003 관람자 분석

비 고	4/24(목)	4/25(금)	4/26(토)	4/27(일)	총 계
현장등록자	7,723	7,457	13,834	13,084	42,098
VIP등록자	2,224	706	378	268	3,576
세미나참석자	906	728	0	0	1,634
언론인	229	94	49	34	406
리본커팅축하	67	0	0	0	67
기타 참석자	39	0	2	2	43
출품업체 관계자	1,737	1,737	1,737	1,737	6,948
총 관람객	12,925	10,722	16,000	15,125	54,772

현수) 등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한인쇄문화협회는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한국의 인쇄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일본어 및 영어 브로슈어를 제작해 배포했으며, 국내에서 인쇄용 사진과 캐릭터를 최대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크루는 자체 제작한 이미지CD와 카탈로그를 선보여 큰 호응을 받았으며, 정문사문화는 취급품목을 소개한 카탈로그를 배포, 홍보활동을 했다.

그리고 청아문화사는 성경과 사진을 전시했으며, 특히 25g짜리 원지를 이용해 성경을 인쇄한 용지를 샘플로 배포해 관람객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모은 한편, 한국의 뛰어난 인쇄술을 소개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또한 평화당인쇄는 일반 도서를 비롯한 해외 가이드북, 고급 책자 등을 선보여 도서인쇄 수출에 밝은 전망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인협은 다음 전시회는 물론 관련 해외 전시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인쇄술을 널리 소개할 방침이다.

이번 동경국제도서전시회에는 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여파에도 불구하고 세계 25개국 550개사가 참가했으며, 관람객 수도 전회에 비해 5,259명 증가한 47,824명으로 최대 참관 인원을 기록했다.

한편, 동경국제도서전시회는 새로 어학교육코너와 서점용 점포관리시스템코너를 신설해 전문성을 높였으며, 자연어학서관, 인문·사회과학서관, 아동서관, 편집제작프로덕션관, 학습서·교육소프트웨어관, 디지털퍼블리싱관 등의 관련 전시회와 병행 개최돼 시너지 효과를 얻기도 했다.

이밖에도 동경국제도서전시회와 병행해 전문세미나가 4월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작가 사인회, 양서 할인코너, 제본 장정 쿡쿠르, 포르투갈 소개관, 출판업체 무료 공개세미나, 관련단체 주최 세미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마련돼 흥미로운 볼거리도 선사했다.

1. 동경국제도서전시회에 참여한 대한인쇄문화협회관. 2. 협회관에서 기념촬영. 3. 개막식 테이프 커팅장면. 4. 연일 만원을 이룬 관람객들 모습. 5. 세미나와 다양한 부대행사가 개최됐다. 6. 청아문화사가 출품한 25g 박엽지 인쇄기술에 외국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